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보험미가입자 외상 사망률, 보험 가입자의 두 배

□ 미국에서는 환자의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미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나 기타 외상에 의한 사망 확률이 보험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.

-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전국의 외상치료센터를 방문한 68만여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보험미가입자의 사망률이 보험가입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냄.
-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보험미가입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를 밝혀냈으나 대부분 암진단 미비, 고도의 의료기술 접근성 결여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외상에도 같은 결과가 도출된데 대해 연구팀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.
- 연구결과 민영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관리 기관(HMO,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) 또는 메디케이드(Medicaid) 등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된 경우는 사망확률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험인 메디케어(Medicare)의 경우와 무보험자의 경우는 사망확률이 각각 56%, 80%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환자 20여만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무보험자의 사망확률은 보험가입자에 비해 89% 높은 것으로 나타나, 젊은 층의 무보험자 사망률이 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□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무보험자의 경우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함.

- 응급실 환자의 경우 보험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방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보험자의 경우 진료 순번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CT, MRI 등을 제공받지 못함.
- 또한 외상으로 사망한 많은 경우는 범죄에 연루된 젊은이들이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리는 경우로 이들은 보통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미가입자의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함.

(LA times, 11/17)